

- 96) 입방아(를) (짚다).
- 97) 입버릇 [(입으로 말하는 버릇). 상투어. 음식을 먹는 버릇.]
- 98) 입벌이 (북한어)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의 벌이.]
- 99) 입속말(로 중얼거리다).
- 100) 입술가락 [막잡이로 얇게 만든 술가락.]
- 101) 입술에 침이나 바르지.
- 102) 입술을 깨물다. [분을 참거나 결심하다.]
- 103)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 104) 입심 [‘입힘’ 에서 온 말로서 말을 즐기치게 하는 힘.]
- 105) 입심(을) 뿜다.
- 106) 입씨름 [성사시키려 애씀. = 말다툼.]
- 107) 입아귀(를) 새기다. [입아귀를 자꾸 놀리며 새김질하다.]
- 108) 입요기(하다).
- 109) 입정(을) 놀리다. [계속 군음식을 먹다. 입버릇 사납게 말하다.]
- 110) 입정(이) 사납다. [군음식을 탐내다. 말하는 입버릇이 나쁘다.]
- 111) 입줄/구설(口舌)(에 오르내리다).
- 112) 입찬 말/소리 [현재 처지만 희뻑게 자랑하거나 장담하는 말.]
- 113) 입찬 말/소리는 무덤 앞에 가서 하라.(속담)
- 114) 입치다꺼리(나 하는 정도)
다. ‘입’ 앞에 수식부분이 있는 예
- 115) 남의 입이 무섭다.
- 116)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다.
- 117) 군입(정) [군음식으로 입을 다심. 주전부리.]
- 118) 군입(을) 다시다. [군음식을 먹다. 아무 것도 먹지 않으면서 그냥 입을 다시다.]
- 119) 군입(정)질 (하다).
- 120) 마른입 [물을 마시지 않은 입. = 잔입]
- 121) 맨입 [아무 것도 먹지 않은 입/처지]
- 122) 맨입에 앞 교군(驍軍) 서라 한다. [어려운 중에 또 어려운 일이 겹치다.]
- 123) 메기입 [넓게 찢진 입을 가진 사람을 조롱하는 말.]
- 124) 못입 [여러 사람의 나무라는 많은 말. 衆口.]
- 125) 잔입 [아침에 잠자고 나서 아직 아무 것도 안 먹은 입.]
- 126)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100여항의 많은 예들이 쉽게 찾아지는 데 이들은 주로 신기철, 신용철(1986)

의 '새우리 말 큰사전'을 참조한 것이다. 이 사전의 '입' 항목 및 그와 관계되는 구절, 복합어의 나열에서 흥미로운 점은 '-에'가 쓰이는 항목은 '입'의 1차적 설명부분에 直列式으로 나열하였고, '-을'과 '-이'가 쓰일 수 있는 항목들은 그 뒤에 각 항목을 並列式으로 각 줄을 잡아 독립시켜 나열하였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1차적 설명부분에는 꽤 많은 표현이 '속담'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2차적 並列 항목 부분에서는 '-을'이 개재될 때는 '타동사'로 (단 '입(을) 붓하다'에는 웬일인지 '자동사'로도 표시하였다.) '-이'가 개재될 때는 대부분 '형용사'로 (단 '입(이) 여물다/여무지다'는 '자동사'로, '입(이) 닳게/도룩'은 '부사'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에'와 '-을/-이'가 완전히 구분되어 처리된 배경에는 처격이 붙은 말보다 목적격이나 주격이 붙은 말이 앞에 올 때 더 독립적 구절로 인식되는 잠재 심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목적격, 주격은 처격보다 더 주요한 格標識이기 때문에 달리 취급을 받은 듯하다.

입) ㉠ ㉡ ①입술에서 후두까지의 부분. 체내에 먹이를 섭취하며 소리를 내는 기관임. ㉠두 입술 부분. * 뼈죽이 내민 아가의 ~이 더욱 귀엽다. ②'사람'이나 '식구'를 비유하는 말. * 우리 집엔 ~이 다섯이다. ~이 많아서 좀처럼 못 얻어 먹는다. ③'말씀씨'를 비유하는 말. * 그 자식은 ~만 가지고 한 몫 보는 친구다. 그 사람 ~ 하나는 그만이지. ~이 푸짐하다. ④먹는 것. ㉠(낮은) 주둥아리②. 입만 까다 말로만 그럴 듯하게 하고 실천은 아니 하다. 입만(입은) 살다(심하다) ①'실천이 따르지 않으면서 말만은 그럴 듯하게 잘함'을 이르는 말. ②'처지가, 음식을 가려 먹을 형편이 못 되면서도 음식을 붉시 가림'을 이르는 말. 입만 아프다. '어려 번 일러 주어도 말한보람이 없음'을 이르는 말. 입 밖에 내다 [비밀한 일이나 남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나타내어 말하다. 입 안의 소리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입안에서 웅얼웅얼하는 가느다란 말소리. 입 안의 혀 =입에(의) 혀. 입에 거미줄 치다 ㉠오랫동안 굶는다는 뜻. 입에 맞는 떡 ㉡'자기의 마음에 꼭 드는 사물'을 이르는 말. 입에 맞다 자기의 식성에 꼭 들어맞다. 입에 문 혀도 깨물다 ㉢사람인 이상 실수가 없을 수 없다는 뜻. 입에 발린(붙은)소리 마음에도 없는 것을 걸치레로 하는 말. 입에서 신물이 나다 ㉣ = 신물이 나다. ⇨ 신물¹. 입에서 젖내(가) 나[난]다 ㉤ ①아직 나아가 어리다는 말. * 입에서 적내가 나는 녀석이 제법 의문스럽군. ②연동이 몹시 어리다는 말. * 입에서 젖내(가) 나는 것을 하는군(구상 유취(口尙乳臭). 젖내(가) 나다).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 교훈은 듣기에 싫은 법이지만 자기 수양을 위하여는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 입에 오르내리다 자주 남의 이야깃거리의 대상으로 되다. 입길에 오르내리다. 입에 오르다 ①이야깃거리의 대상으로 되다. ②(무엇을) 말하기에 버릇이 되어 굳어지다. 입에 익다 입에 버릇이 되어 배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없이) 남을 아주 좋게 말하거나 또는 몹시 찬양해서 말함의 비유. 입에 풀칠(을)하다 ㉦겨우 목숨이나 부지할 정도로 굶지 않고 산다는 뜻(목구멍에 풀칠한다). 입에(의) 혀 같다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함을 이르는 말. 입 안의 혀.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하랴(해라) ㉧ 비록 이롭지 못한 조건 아래 놓여 있다 하더라도 말만은 언제나 정직하게 하라는 뜻(입은 비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렀다).

입을 딱 벌리다 하도 엄청나서 기가 막혀 하거나 또는 매우 놀라와함을 이르는 말. 입이 근질근질하다(가렵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 입이 보배 **속** 입으로는 먹는 일이나 말하는 일 무엇이나 다 한다 하여 이르는 말. 입이 사복 개천 같다 **속** ⇨사복(司僕) 개천. 입이 열 둘이라도 말 못한다 **속** 변명할 여지가 도무지 없게 되었음을 이르는 말 [입이 광주리만해도 말 못한다]. 입이 원수 = 구복이 원수. ⇨구복. 입이 천근 같다 '입이 썩 무거움'의 비유. 입이 포도청 **속** =목구멍이 포도청. ⇨ 목구멍. 입이 할박 만 하다 '아주 만족해함'의 비유.

입(이) 가볍다 **활** **남변** 말수가 많고 신중하지 못하여 경솔하다.

입(이) 겹다 **활** **남변** 말솜씨가 험하고 푸지다. 입(이) 질다.

입(을) 놀리다 **타**말을 결술하게 자꾸 하다.

입(을) 다물다 **타** **남변** ①말을 하지 아니하다. ②하던 말을 그만두다.

입(이) 달다 **활** **남변** 구미가 당겨서 음식이 맛이 있다.

입(이) 닳게 **부** = 입(이) 닳도록.

입(이) 닳도록 **부** 기회 있을 적마다 상대방이 잘 알아듣도록 여러차례 거듭해서 말함을 이르는 말. 입(이) 닳게.

입(이) 더럽다 **활** **남변** 입이 걸어 말버릇이 고약하다.

입(이) 되:다 **활**맛있는 음식만을 먹으려고 하는 버릇이 있다. 음식에 까다롭다.

입(이) 떼:다 **타** = 입(을) 열다.

입(이) 뜨다 **활** **남변** 입이 무거워 말수가 적다.

입(을) 막다 **타** ①말이 밖으로 나지 않게 하다. ②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도록 어느 정도 만족하게 하여 주다.

입(을) 맞추다 **타** [두 사람이] 입술을 서로 대다. 애정이나 존경 등의 뜻을 나타내는 것임.

입(을) 모오다 **타** **남변** [어떤 안전이나 일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같은 의견으로 말하다.

입(이) 무겁다 **활** **남변** 말수가 적고 듬직하다.

입(이) 무섭다 **활** **남변** 이러쿵저러쿵 여러 말[소문]이 날까 보아 두렵고 꺼림칙하다.

입(이) 바르다 **활** **남변**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듣는 이가 꺼려할 만큼 거침없이 날카롭게 말을 잘하다. ×입(이) 빠르다②.

입(이) 밉다 **활** = 입(이) 짧다.

입(이) 벌여지다 **재** 마음에 흡족해서 저절로 입을 다물다.

입(을) 봉하다(一封一) **재****타** **남변** ①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다. ②함부로 말을 꺼내어 떠들지 못하도록 만들다. 입(을) 함봉하다.

입(이) 빠르다 **활** **남변** ①[입이 가벼워] 남에게서 들은 말이나 생각하는 바를 참을성 없이 되는데로 마구 지껄이다. 입(이) 재다. ② →입(이) 바르다.

입(이) 싸다 **활** 무게 없이 경망하게 입을 놀리는 버릇이 있다.

입(이) 쓰다 **활** **남변** ①구미가 당기지 아니하여 음식맛이 없다. ②맛갓지 아니하여 기분이 언짢다. * 그 많은 재산을 탕진했으니, 그도 입이 쓸 거야.

입(을) 씻기다 **타** 자기에게 불리한 다른 말을 내지 못하도록 매수하려고 남몰래 돈이나 물건을 쥐어 주다.

입-씻다 **재** ①입을 씻다. ②이문 같은 것을 혼자 속삭이거나 가로채고서 모르는 체 시치미

를 떼다. * 이문은 혼자 먹고 입씻어 버린다.

입(이) 여무지다 ㉞ = 입(이) 여물다.

입(이) 여물다 ㉞ ㉞ ㉞ 말이 확실하고 실속이 있다. 입(이) 여무지다.

입(을) 열:다 ㉞ ㉞ ㉞ 말을 꺼내다. 입(을) 떼다.

입(이) 재다 ㉞ = 입(이) 빠르다①.

입(이) 질다 ㉞ ㉞ = 입(이) 걸다.

입(이) 짹다 [---짹따] ㉞음식을 가려 먹거나 또는 적게 먹는 습관이 있다. 입(이) 발다.

입(을) 틀어막다 ㉞ [자기에게] 불리한 말이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못하게 대책을 세우다.

입(을) 함봉하다(一緘封一) ㉞ ㉞ = 입(을) 봉하다.

입(이) 험하다 ㉞ ㉞ 말을 험하게(걸게) 마구 하는 버릇이 있다.

입² ㉞(옛)어귀. 출입구(出入口). 문호(門戶). * 峽人이베(峽口)《杜解》. 입과 窓과 窓(戶牖之隙)《楞嚴 2:25》. 입호(戶)《訓蒙中5》.→입²②.

입-가 ㉞입의 가장자리. 입의 언저리.

입(이) 가볍다 ㉞ ㉞ ㉞ →입!

입-가심 ㉞①(입 안이 텅텅하거나 쓰거나, 또는 느끼할 때) 입 안을 개운하게 하는 일, 또는 그러한 물건. ×입씻이②. ②입만사 나게 하려고 음식을 먹기 전에 간단하게 먹는 일, 또는 그러한 물건. →입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 간단하게 먹는 일, 또는 거러한 물건. →입씻이. 一하다 ㉞ ㉞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위의 '입'이, '눈'의 경우처럼 '視覺'이란 한 뜻을 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言'과 '食'의 두 뜻을 나타내고 또 '口'라는 물체를 나타내는 경우까지 3중적 의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양상을 몇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고, 대략 집계해 본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3등분이 되는 듯하다.

(17) 가. '言'의 뜻으로 쓰인 경우

- 1) 입 밖에 내다.
- 2) 입만 까다
- 3) 입을 놀리다, 등.

나. '食, 味'의 뜻으로 쓰인 경우

- 1) 입에 맞는 떡
- 2) 입이 궁금하다
- 3) 입맛이 돌아, 등.

다. '口'의 뜻으로 쓰인 경우

D. '개' : 기타

위에서 보인 명사류의 세 단어는 다 신체어에서 1~3위를 접했다. 그 뒤를 따르는 단어는 '개'로서 처음으로 신체어가 아닌 일반 의미를 지닌 항목이 나온 셈이다. 여기에 그 내용을 일일이 보일 지면이 없어 後稿로 미루려 한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개' 다음에는

어떤 단어들이 집계될까만 예측해 보려 한다. 5위 이하는 '물, 땅, 말(言), 귀, 사람, 밥, 밭, 코' 등으로 이어질 것이 예측되며 이 중에는 여전히 신체어가 많이 끼어 있다. 후에 그 용례는 별도로 모아 발표하겠다.

2) 동사류의 의미유형

관용표현의 의미유형을 동사류 쪽에 중심을 옮겨 살펴 보는 일은 명사류와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다양성이 있는가를 가늠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다. 우선 그 상위 후보어들을 예측해 보기 위한 표본으로 한 무리의 관용표현을 검토해 보니, '-없이' 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없다'가 가장 많이 쓰였다. 그 밑 순위에는 '보다, 먹다, 나다, 쓰다' 등이 있고, '하다'는 한자어 어간 뒤에 '-하다' 식으로 붙이는 형태는 꽤 많지만 '하다' 단독으로만 쓰이는 경우는 '쓰다'와 비슷한 수였다.

표. '없다/없이'

엄밀히 말하면 형용사 내지 존재사라 해야 할 '없다'인데 여기서는 광범위한 의미의 記述動詞로서 동사류라는 총칭 하에서 다루기로 한다. 순서에 관계없이 그 용례를 살펴 보되, '없이'를 뒤에 몰아 보겠다.

(18) 가. '없다'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

- 1)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 2) 강아지/개미 새끼 한마리 볼 수 없다.
- 3) (얼굴을) 눈 뜨고 볼 수 없다.
- 4) (부끄럽)기 짝이 없다.
- 5) (그)는/를 코빼기도 볼 수 없다.
- 6) (떡)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다.
- 7) 간 곳이 없다.
- 8) 걸잡을 수가 없다.
- 9) 구김살이 없다.
- 10) 국물도 없다.
- 11) 군소리 없다.
- 12) 나무랄 데가 없다.
- 13) 너 나 할 것 없이/다.
- 14) 뒤가 없다.
- 15) 둘도 없는 기회/친구.
- 16) 밀도 끝도 없이/다.
- 17) 별 볼 일 없다.

- 18) 보이는 것이 없다.
- 19) 세상에 없는 효과.
- 20) 싹수/아지가 없다.
- 21) 어렵도 없다.
- 22) 어이가 없다.
- 23) 어처구니가 없다.
- 24) 종잡을 수가 없다.
- 25) 피도 눈물도 없다.

나. '없이'가 명사 바로 뒤에 붙는 경우

- 26) 그지없이 [끝이 없이]
- 27) 더 할 나위 없이
- 28) 남김없이
- 29) 다시없이
- 30) 덧없이
- 31) 두서없이
- 32) 맥없이
- 33) 빠짐없이
- 34) 부질없이
- 35) 사정없이
- 36) 세상없이/어도
- 37) 속없이
- 38) 속절없이
- 39) 수(도)없이
- 40) 숨김없이
- 41) 월새없이
- 42) 시름없이
- 43) 실없이
- 44) 어김없이
- 45) 열없이
- 46) 정신없이
- 47) 주책없이
- 48) 철없이
- 49) 틀림없이

- 50) 하릴없이
- 51) 하염없이
- 52) 할 수 없이
- 53) 허물없이

다. '없다'로 시작되는 속담들

- 54) 없는 꼬리 흔들까. [뜻이 있더라도 물질적 조건이 없으면 못한다.]
- 55) 없는 놈이 비단이 한때라. [비단을 가지고도 한 끼밖에 못 잇는다.]
- 56) 없는 놈이 있는 체, 못난 놈이 잘난 체.
- 57) 없는 놈이 자 두치 떡 자주 한다. [역량이 없이 사치한 것만 좋아한다.]
- 58) 없는 놈이 찬밥 더운밥을 가리랴.
- 59) 없는 손자 환갑 닥치겠다. [오래 기다려 참을 수 없다.]
- 60) 없어(서) 비단 옷/치마. [다른 옷이 없어 입었다.]
- 61) 없으면 제 아비 제사도 못 지낸다.

위의 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명사류에 관련된 관용표현의 수보다 여기 용언에 관계된 경우가 오히려 수치상 빈약하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일정한 명사류에 다양한 동사류들이 붙어 그 수가 많아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나(안경화 1986), 이것만으로 '동사 부분이 ... 관용의미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속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용례를 보이는 상대적 우위는 명사들에 있기 때문이다. 명사류를 둘러싸고 그와 관련된 관용표현을 우선 연구하고, 상호보완적으로 동사류를 중심으로 한 연구도 별리는 것이 좋겠다. 동사류의 연구는 '먹다'와 '빠지다'에 대한 최근 연구(홍재성 1992, 1993)를 볼 수 있다.

4. 맺음 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비정상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져 왔던 관용표현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관용표현의 언어학적 정의를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수공기 관계에 놓이면서 화석화되어 통사적으로 굳어진 체 사용되고, 의미상 그 결합 요소들 각개 의미의 단순한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지니게 된 특수 표현들"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용표현의 개념이 속어구문이나 합성표현 또는 관용구를 포괄하는 넓은 것이라고 할 때, 우선 이 중에서 속어구문에 한정하여 2장에서 속어구문의 통사론적 기술을 시도하였다. 우리는 속어구문을 엄격하게 통사한 활용—단일어/이개어사전 편찬 또는 자연어어 처리 프로그램의 지원 등등—을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자료체 구성의 방법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관용표현의 언어학적 의미유형의 문제를 검토해 보았

다. 우리말의 관용표현 구성에 빈도수가 가장 높은 ‘눈, 손, 입’ 등의 신체부위 명사를 중심으로 자료체를 구성하여 분석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명사의 의미 구분을 통해 관용표현의 의미적 유형화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위규 1988. ‘관용어의 특성에 대하여’, 부산 한글 7(한글학회 부산지회).
- 김영석, 이상익 1992. 현대형태론, 학연사.
- 김문창 1990. ‘관용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심재기 1986.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 11.
- 안경화 1986. ‘한국어 속어 유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익 1993. ‘관용표현과 합성어의 분석 및 어휘부 내에서의 처리’, 어학연구 29권 3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한정길 1986. ‘속어표현에 대하여’, 어학연구 22권 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홍재성 1992. ‘동사 먹다의 사전적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논의’, 새국어생활 2-4. 국어연구소.
- 홍재성 1993. 먹다 속어동사구문의 통사적 기술, 어학연구 29권 3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Danlos, L. éd. 1988. *Les expressions figées, Langages* 90.
- Gross, M. 1982. Une classification des phrases figées en français, *Revue Québécoise de Linguistique* 11-2.
- . 1990. Grammaire transformationnelle du français 3: Syntaxe de l’adverbe, Asstril.
- . 1991. Les principes de la représentation des formes figées dans le lexique-grammaire du français(manuscrit).
- Hockett, C.F.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MacMillan Co., New York.
- Searle, J.R. 197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Univ. Press. London.

《Abstract》

An Analysis of Frozen Expressions & Compounds and their Treatment in the Lexicon

Sang-Oak Lee

The term “idiom” or “idiomatic/frozen expression” is very broad and can include such concepts as proverbs and polysemy. If we consider idioms merely from the viewpoint of shift in meaning, there are many words which can be classified as idioms, but we treat these as polysemy, a simple expansion of a single word, and exclude them from the present discussion.

First, we have tried to present the tentative system of classification for the syntactic description of Korean idioms which are frozen centered around a verb. The principle that we apply in this paper for the analysis is that of lexicon-grammar of M. Gross: to describe the structure and the properties of idiomatic constructions in the same formal method as common simple sentences. Secondly, we have explained how to represent the semantic types of Korean frozen expressions through the analysis of idioms with a body-noun such as ‘눈’, ‘손’, ‘입’ etc.